

디폴트 사태로 본 키르치네르주의(Kirchnerismo)

김기현

1. 키르치네르주의의 탄생

오늘날 아르헨티나의 모든 현상은 2001년 경제위기의 발생과 그로 인한 키르치네르주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된다. 2001년 12월 태환제도의 붕괴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아르헨티나 역사의 한 시기를 마감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치계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국민들은 정치계급 전반을 부정하면서 ‘모두 꺼져라’를 외쳤다.

이런 상황에서 우파는 상황을 보다 더 자극하면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파산을 선언하고 국제적인 전문가 위원회에 모든 결정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반해 좌파는 특별한 대안 없이 대의제 거부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내세웠다.

위기 탈출이라는 관점에서 보수정권 심지어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없지 않았지만 다행이도 위기상황은 평화적이고 온건하고 점진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2003년 5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Néstor Kirchner)를 중심으로 하는 페론 좌파 그룹들이 권력을 잡았다.

키르치네르 정부는 한편으로 변화와 개혁의 메시지를 천명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인 페론주의 정책을 유지했다.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여전히 페론당 소속의 국회의원, 주지사, 노조였다. 키르치네르 정부의 요

직을 맡은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메넴을 지지했으며,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키르치네르는 이들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변화는 불가피했다. 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개발주의와 국가의 사회적 분배 기능의 강화가 이미 새로운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모가 2009, 289)

키르치네르주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의 페론주의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먼저 그는 현재의 페론당이 이념적 지향성 없이 단순히 각자의 이해실현을 추구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연합이 되었음을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정당의 확고한 이념적 지향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그는 정당 내부의 소통부재를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페론당은 소수의 지도자들이 지지자를 이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 내민주화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또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사법정의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그는 정당에 구애받지 않는 지도자로서 페론당에 적대적인 개인 및 집단들과도 연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그를 통해 키르치네르는 진보주의 연합 혹은 중도좌파 연합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들 중 일부를 정부의 요직에 등용했다. 키르치네르파와 진보세력과의 연합은 유기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모두 기존의 페론당에 반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현안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는 공통된 의견은 해외금융자본에 대한 불만, 국제금융기구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 대한 비판,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들의 변화에 대한 동경,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및 경제통합에 대한 거부 정도였다. 공공서비스의 재국유화나 해외채무서비스의 동결과 같은 정책은 내부에서도 긴장과 갈등을 야기했다.(시디카로 2013, 149)

어쨌든 키르치네르 정부는 디폴트 이후 IMF나 국제금융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 신용대출 없이 단지 남은 외환보유고만을 사용해서 생존하는 경제모델을 보여주었다. 국제금융시장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키르치네르 정부 아래 아르헨티나 경제는 236%에 달하는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 경쟁력 향상과 원자재 가격상승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사회적 지표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로 인해 2007년 10월 대선에서 키르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정부에서 단행한 YPF재국유화를 위한 시위
(출처: <http://www.infonews.com/2014/04/15>)

치네르의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ández)가 45%의 득표율로 1차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었다.

2.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와 키르치네르주의의 변화

크리스티나 정부는 경제회복으로 인해 전 정권에 비해 강력한 정당성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임기 초 크리스티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의 국제시세가 상승하자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수출세 인상을 통해 정부의 수입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지주계급은 물론 중소규모의 농민들이 반발했고, 그로 인해 몇몇 지역의 페론당 지도자들과 크리스티나 정부와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이는 키르치네르주의의 중요한 지지기반 하나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이때부터 키르치네르주의의 위기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키르치네르주의의 위기설은 그 후에도 2009년 총선 후, 2012년 크리스티나 재선 후 대규모 시위 발생 시 다시 불거졌으며, 2014년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다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페론당 분열과 국제금융위기의 결과 2009년 총선에서 크리스티나 정부는 사실상 패배했다. 그러나 반키르치네르주의자들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2011년 크리스티나는 페론 이후 최고의 지지율인 54.11%로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그 후 크리스티나 정부는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는 선거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모든 위기설을 일축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크리스티나 정부는 이미 고인이 된 남편 키르치네르와는 다른 보다 전투적 리더십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크리스티나 정부는 청년 부문의 ‘라 캄포라’(La Cámpora)¹⁾와 같은 열광적 지지 그룹을 주요 기반으로 삼으면서 페론당의 일부 지역리더나 일부 노조 지도자들과는 충돌하기 시작했다.²⁾

2011년까지 1기 정부에서는 키르치네르주의 ‘모델을 심화하자’는 슬로건을 주로 사용했다면, 2012년 2기 정부부터는 키르치네르주의 모델의 ‘세밀한 조화(sintonía fina)’를 내세우면서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경제 정책의 기조는 급진화였다.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외환보유고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외환시장과 수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YPF의 재국유화도 에너지 생산을 증대하고 그로 인해 에너지 수입을 감소함으로써 무역수지를 호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심화되었고, 외환시장의 통제로 인해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산업생산이 감소함으로써 경기침체가 이어졌다. 2012년의 대중시위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했다. 2012년의 대중시위에는 키르치네르에 등을 돌린 일부 노조세력의 권력추구라는 이해관계가 숨어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자본주의 발전의 한계로 인한 불만이 또 다른 요인이 되기도 했다. 반크리스티나 노조세력과 함께 일반시민과 중소자본가계급들이 시위에 참여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키르치네르주의의 경제사회적 모델에 대한 비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코타렐로 2013, 113-119)

-
- 1) ‘라 캄포라’는 과거 페론좌파 리더의 이름을 따서 만든 페론당의 청년 조직으로서 크리스티나의 아들인 막시모(Máximo)가 설립하고 현재 리더를 맡고 있다.
 - 2) 그로 인해 크리스티나 1기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시장 몇몇을 이끌고 탈당했으며, 노동자총연맹(CGT)의 우고 모야노(Hugo Moyano)파도 탈당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부장관 악셀 키실로프 (출처: <http://www.theguardian.com/>)

이런 상황에서 2013년 10월 총선은 키르치네르주의에 대한 또 한 번의 국민 평가의 장이었다. 지병으로 크리스티나가 선거 전면에 나설 수 없었지만 이 선거에서 여당연합인 ‘승리를 위한 연대’(FPV)는 2009년 총선 지지율 31%보다 높은 33%의 지지를 받았으며, 의석수를 2009년 총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하원 257석 중 여당연합은 기존의 132석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과반수를 유지했으며, 상원에서는 3석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70석 중에서 40석을 획득함으로써 역시 과반수를 유지했다.

3. 2014년: 키르치네르주의의 위기와 대응, 디폴트의 의미

총선 이후 병으로 중단했던 대통령직을 재개한 크리스티나는 정치적으로 페론당의 지방 주지사들 사이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가진 차코 주의 주지사 호르헤 카피타니치(Jorge Capitanich)를 국무총리에 임명하여 주요 역할을 위임하고 자신은 갈등에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지금까지 국내상업부 장관으로 경제를 사실상 주도해왔

던 기예르모 모레노(Guillermo Moreno)를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임시키고, 경제부장관에 악셀 키실로프(Axel Kicillof)를 임명해 그에게 새로운 경제 주도권을 부여했다. 키실로프는 무엇보다 외부적 제재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용적 조치들을 취했다. 무엇보다 신뢰할 만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수도세와 가스세 같은 공공요금에 보조금도 감소했으며, 점진적으로 평가절하도 단행했다. 또한 에너지 적자를 줄이고 나아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 세일가스전의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고자 했고, 그를 위해 우선 렙솔(Repsol)과의 YPF 국유화에 따른 보상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 정상적으로 환원하기 위해 국제금융조직과 국제재판소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Aboy Carlés 2014, 13)

하지만 크리스티나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통파 정책으로 방향을 완전히 선회한 것은 아니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녀의 성격상 또 여당 연합 내에 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세력이 없다는 점 때문에 완전한 방향 전환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크리스티나 정부 경제정책의 실용적 접근은 경제적 붕괴를 막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The Economist, 2014.04.12)

2014년 7월의 디폴트 선언은 이런 와중에서 발생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1년 디폴트 선언 이후 채권자들과의 오랜 협상 끝에 원금의 70%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2010년까지 채무의 93%를 해결했다. 국제금융시장도 이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벌처펀드’들은 아르헨티나의 채권을 20% 가격에 인수해 아르헨티나 정부에 채무전액 상환을 요구하면서 뉴욕연방법원에 아르헨티나 정부를 고소했다. 그리고 미국의 법원은 벌처펀드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예정된 모든 외채서비스 지급을 집행하였지만 법원의 명령에 의해 미국은행을 통한 지급이 차단되었고, 그로 인해 디폴트가 발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르헨티나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이 더욱 어려워졌고 외부적 취약성도 보다 커졌다. IMF 총재나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도 이러한 조치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



벌쳐펀드에 반대하는 아르헨티나 시위대의 모습 (출처: <http://www.economist.com/>)

은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 정권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목표인 미 의회 신보수주의자들의 입김이 강력히 작용했기 때문이다.(위스브룻 2014, 17)

4. 키르치네르주의의 미래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경제 전반에 있어서 원자재 수출과 국내소비 확대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 모델의 사이클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 남은 선택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유입은 아르헨티나에 키르치네르주의가 존재하는 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외국자본은 키르치네르주의가 없는 보다 신뢰할 만한 아르헨티나를 원한다. 따라서 이번 디폴트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크리스티나 정부가 실용적 접근을 통해 외국자본을 유입하려는 시도는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는 대외적 요인은 키르치네르주의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키르치네르주의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처럼 보인다. 국민의 40%는 여전히 크리스티나를 지지하

고 있다. 상하원에서도 여당연합은 아직 다수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키르치네르주의는 위기를 좌파정책의 강화를 통해 극복해왔다. 2001년 경제위기는 IMF와의 협상거부를 통해, 2008년의 세계경제위기는 연금제도 국유화와 보편적 복지정책 실시 등의 정책을 통해, 2010년 에너지 위기는 YPF 국유화를 통해 극복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키르치네르주의의 급진적 변화 즉 포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나탕송 2014, 13)

최근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도 잡기 위해 폐소화의 추가 평가절하와 이자율 상승을 주장했던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장 파브레가(Fábrica)가 사퇴하고, 그러한 조치가 경기를 보다 위축시킬 것을 우려해 그에 대해 반대했던 경제부 장관 키실로프가 경제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사실을 보더라도 키르치네르주의가 위기극복을 위해 긴축과 같은 보수적 처방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키르치네르주의의 미래는 아르헨티나 경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크리스티나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는 여전히 높다. 디폴트 사태는 오히려 국내에서 정치적 지지율 상승을 가져왔다. 그러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대중이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크리스티나 정부에 대한 그러한 지지도 사라질 것이다.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의 기본체력은 크게 나쁘지 않다. 물론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로 반전되고, 재정수지 적자도 확대되고 있지만, 그 수준이 과거 외환위기 때와 같이 심각한 정도는 아직 아니다. 외채 규모도 GDP의 21% 수준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자본수지 적자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고, 그로 인한 환율 불안정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것이 문제이다.(CEPAL 2014, 187-213)

결국 현재 아르헨티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초체력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부족의 문제이다. 과거 폐소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와 예금 동결 등을 경험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경제에 있어서 약간의 부정적 징후에도 달러를 매입해 침대 밑에 감추거나 해외로 유출한다. 외국 자본의 유입도 크리스티나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외환

부족에 대한 우려로 평가절하 압력은 계속되고 비공식환율도 계속 치솟고 있다. 결국 키르치네르주의의 미래도 이러한 불신에 따른 달러 매입과 해외유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참고문헌

- 나탕송, 호세(2014),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주의는 종말을 맞을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8월호, p. 13.
- 모까, 에드가르도(2009), “아르헨티나, 개혁좌파의 두 성향”,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편), 『2009 라틴아메리카. 변화하는 지정학』, 서울: 마루북스, pp. 277-295.
- 시디카로, 리카르도(2013), “페론당과 키르치네르 정부”, 박윤주 편역, 『라틴아메리카 지정학 1.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남미의 대안』,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31-159.
- 위스브룻, 마크(2014), “아르헨티나에서 궁지에 몰린 별처펀드”, 『르몽드디플로마티크』, 11월호, p. 17.
- 코타렐로, 마리아 셀리아(2013), “2012년 아르헨티나: 국가적, 민중적, 민주적인 사회 역량의 위기인가?”,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편), 『2013 라틴아메리카. 대통령 선거와 정세 변화』, 서울: 이숲, pp. 103-121.
- Aboy Carlés, Gerardo(2014), "El declive del kirchnerismo y las mutaciones del peronismo", *Nueva Sociedad*, No. 249, enero-febrero, pp. 4-15.
- CEPAL(2014), *Estudio Económ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14*, Santiago de Chile: CEPAL.
- The Economist, "The CFK psychodrama", 2014.04.12.

김기현 — 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